

## 본회퍼와 유대인의 문제\*

강안일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본회퍼의 구약 이해 : 구약 경시는 유대인 경시로!
- III. 참된 교회의 문제로서의 유대인 문제
- IV. 나가는 말 - 한국 교회에 주는 의의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04>

---

\* 이 논문은 2022년 11월 26일 기독교사회윤리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 ABSTRACT •

---

## Bonhoeffer and Jewish Problem

Lecturer Prof., KANG, AN IL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Jewish problem” for Bonhoeffer. To this end, this paper began by looking at how Bonhoeffer was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under the premise that his theology and life were intimately connected. First of all, the 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is due to Bonhoeffer’s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Old Testament understanding and Jewish matters. In this way, Bonhoeffer made it clear that knowing the Old Testament was the way to properly understand the New Testament.

Finally, this paper shows the significance of the Jewish problem to Bonhoeffer in three aspects. One is that Korean Christians must be retrained to read the Old and New Testaments together. The other is to support organizations dealing with the “Jewish problem” so that the issue of Jews and Judaism in Korea can be renewed. Finally, as the Jewish church at that time was connected to the essential problems of the true church, the church’s position on the MV Sewol victims of the tragedy victims and the comfort women victims in Japan is clearly present. Because these victims are also members of the church. Like the historical background that Bonhoeffer accepted the “Jewish problem” as the church’s existence, the issue of MV Sewol and the comfort women is not just a political, economic, or social problem, but in Bonhoeffer’s point of view, the nature of the church’s position.

**Key words:** Bonhoeffer, Jewish problem, Korean Church, Old Testament Understanding, the true church from the false church

---

## I. 들어가는 말

본회퍼(1906-1945)에게 ‘유대인의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는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을까? 그가 살았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유대인(교)의 문제’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본 소고는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럼 이 질문들에 올바르게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본회퍼가 살았던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의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역사적인 삶의 배경을 알아야 하고, 그의 역사적인 삶의 모습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학을 또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삶과 신학을 깊은 연관성 속에서 연구하는 방식은 본회퍼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sup>1)</sup> 특히 본회퍼 자신도 그의 책에서 주장했<sup>2)</sup>, 방대한 그의 삶과 사상을 깊이 연구한 베틀게(Eberhard Bethge, 1909-2000)도 “인식과 실존의 연관성은 그의 신학적인 저작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sup>3)</sup>라고 주장했다. 또한 퇴트(Heinz Eduard Tödt, 1918-1991)도 본회퍼의 신학이 “깊은 사고와 결정적인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sup>4)</sup>을 주장하였다.

1) Christiane Tietz(hsg), *Bonhoeffer Handbuch*(Tübingen: Mohr Siebeck, 2021). Christiane Tietz, *Dietrich Bonhoeffer: Theologe im Widerstand*, 김성호 역, 『디트리히 본회퍼-저항의 신학자』(서울: 동연, 2022); Christoph. Strohm, *Theologische Ethik im Kampf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Der Weg Dietrich Bonhoeffers mit den Juristen Hans von Dohnanyi und Gerhard Leibholz in den Widerstand*(München: Chr. Kaiser, 1989).

2) Dietrich Bonhoeffer, *Dietrich Bonhoeffer Werke*, hg. v. E. Bethge, E. Feil, Chr. Gremmels, W. Huber, H. Pfeifer, A. Schönherr, H. E. Tödt, I. Tödt, München 1986-1991(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2-1999). 이후 전집 표시는 ‘DBW’로 사용한다. DBW 4, 38.

3) Eberhard Bethge, *Dietrich Bonhoeffer*(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5), 523-525; Eberhard Bethge, *Dietrich Bonhoeffer*, 김순현 역, 『디트리히 본회퍼』(서울: 북 있는 사람, 2014).

이런 관점에서 본 소고는 본회퍼에게 ‘유대인의 문제’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자고 한다. 그러나 본 소고에서는 본회퍼에게 ‘유대인의 문제’가 가지는 의미를 그의 삶에서 중요한 몇 가지 점에서만 선별하여 다루었음을 미리 밝힌다. 이런 제약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본회퍼에게 ‘유대인의 문제’에 연관된 구약성경의 이해를 다룰 것이다(II). 제일 먼저 구약성경 이해를 다룬 것은 본회퍼에게 구약성경의 이해와 유대인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회퍼에게 유대인의 문제가 교회의 존재, 즉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가르는 기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그가 쓴 여러 글들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III). 마지막으로 본회퍼에게 ‘유대인의 문제’가 한국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IV).

## II. 본회퍼의 구약 이해 : 구약 경시는 유대인 경시로!

본회퍼는 구약성경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 또한 본 소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대인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우선 그가 가진 구약 이해부터 시작해보자. 그런데 구약 이해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회퍼가 생각하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관계에 대한 문제는 조직신학적으로 오랜 토론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sup>5)</sup> 핵심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은 구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핵심 인데, 본회퍼가

4) H. E. Tödt, *Theologische Perspektiven nach Dietrich Bonhoeffer*(München: Chr. Kaiser, 1988), 11.

5) 이것을 위해 다음 책을 참고하라. H.G. Pohlmann, *Abriss der Dogmatik*, 이신건 역, 『교의학』(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3). U.H.J. Körtner, *Dogmatik*(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8). 본회퍼의 생각과 연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Ernst Georg Wendel, *Studien zur Homiletik Dietrich Bonhoeffer. Predigt-Hermeneutik-Sprache* (Tübingen: Mohr, 1985), 83-109.

활동하던 시기에도 구약에 대한 견해가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뉘어 있었다. 부정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와 그룹은 하르낙(Adolf von Harnack, 1851-1930)과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Deutschen Christen)이 대표적이다.<sup>6)</sup>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이미 구약에 대한 평가절하는 당시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하르낙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이런 일반적인 흐름 가운데 있던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히틀러가 1933년 결정적으로 정권을 잡은 시기에, 나치와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국가사회주의(나치)를 옹호하면서 반셈족주의 정책을 추진한 개신교도들이 사용한 명칭이다. 이들은 교회를 나치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화(Gleichschaltung)하려는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이었고, “기독교가 독일에서 독일의 문화를 통하여 적절한 표현을 발견한다고 믿었으며,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을 히틀러가 완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sup>7)</sup> 그리고 이들도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동일하게 구약의 가치를 현격하게 평가절하 하였다. 이런 구약의 평가절하는 그들이(나치) 취한 유대인들에 대한 극단의 조치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구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로는 바르트(K. Barth)와 피셔(Wilhelm Vischer)가 대표적이다. 본회퍼도 바르트의 입장과 동일하게 구약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 구약을 바라보는 본회퍼의 이해는 그가 옥중에서 쓴 편지(1943.12.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나는 그밖에 다른 점에서 갈수록 얼마나 구약성서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꽤 많은 달 동안 구약성경을 신약

6) Christiane Tietz(hsg), *Bonhoeffer Handbuch*, 314-321를 참고하라. 또한 Frank Crüsemann, *Das Alten Testament als Wahrheitsraum des Neuen. Die neue Sicht der christlichen Bibel*(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1), 31-64.

7) John W. de Gruchy 편, *The Cambridge to Dietrich Bonhoeffer*, 유석성, 김성복 역, 『본회퍼 신학개론-캠브리지 지침서』 (서울: 중문화사, 2017), 27.

성경보다 더 많이 읽었습니다. 단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삶과 지구를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과 새로운 세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에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때, 사람은 올바르게 또한 확실히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진노와 그의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유효한 현실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용서와 원수사랑에 대한 어떤 것을 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직접적으로 신약성경적으로 되고, 그렇게 느끼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벌써 여러 번 자주 말했고, 모든 날 그것이 옳다는 것이 나에게 확정되었습니다.”<sup>8)</sup>

본회퍼는 구약성경을 아는 것이 신약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향임을 분명히 말한다.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의 단지 종교적인 초보단계라 보는 견해에도 저항하게 한다. 또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읽은 것은 즉, 올바른 구약 이해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분별 기준이 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것은 나치에 대한 하나의 저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통일성의 모습을 쿠스케(Martin Kuske, 1940-1995)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본회퍼가 성경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읽는 방법은 ‘부활의 빛 아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관점만을 강조하지 않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읽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신약으로부터 구약을 나아가는 방향으로, 즉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인 관점

8) DBW 8, 226.

에서 상호 작용하는 양방향 운동(*wechselseitige Bewegung*)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다.)<sup>9)</sup> 본회파의 이런 읽기는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회파가 맞서 싸우고 있는 국가사회주의는 철저하게 구약을 평가절하하고, 그것으로 인해 유대인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회파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을 단순히 성경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의도로만 보지 않고, 역사적인 배경과 연결하여 주장한 강성모의 의견은 타당하다.

“바르트가 하나님의 계기를 바탕으로 한 성서의 새로운 해석을 신약에만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본회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서해석의 방법론을 구약에 까지 적용하려 했던 것이다. 잔 디 그루치에 의하면 본회파는 구약을 가톨릭의 성서의 일부로서 신약과 대등한 입장에 놓고 보았으며, 신, 구약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지녔다. 당시 독일의 국내 상황을 놓고 생각한다면 구약을 경시하는 풍조는 곧 유대인을 멸시하는 자세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강성모는 우선 바르트와 비교하여 본회파의 특징을 강조하였고,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안내한다.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그것이 갖는 의미를 계속해서 열거한다.

‘히틀러 정권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을 탄압했다. 본회파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위에서 구약 성경이 갖는 현세적인 성격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로 구약에서 나타난

9) Martin Kuske, *Das Alte Testament als Buch von Christus*(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1), 111 또는 132.

10) 강성모, 『이 사람을 보라: 본회파의 삶과 신학』(서울: 나눔사, 2006), 200.

하나님은 언제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고, 세상 한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이것 때문에 본회퍼가 구약성경의 시각에서 신약성경을 보고자 한 동기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사람들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약을 바라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sup>11)</sup>

강성모의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본회퍼의 구약 이해는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 방법이면서, 동시에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의 저항의 역할도 분명하게 담당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위의 평가에 따르면 본회퍼가 가진 올바른 구약 이해를 통한 상호 작용하는 방향 운동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읽기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교회에서 행하는 신학적인 작업의 준폐의 위기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회퍼의 말을 들어보자.

“오직 신학적으로, 즉 교회로부터 볼 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며, 이 신앙에 따라 교회와 신학적 학문이 서고 넘어지는 것이다.”<sup>12)</sup>

이런 생각은 그가 생애 후반 감옥에서 작성한 편지를 모아 출판한 『저항과 복종』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성경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는 본회퍼의 입장은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약성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왜 구약성서에서는 거리낌 없이, 그리고 빈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짓말(나는 지금 이에 대한 성서 구

11) 위의 책, 200.

12) Dietrich Bonhoeffer, *Schöpfung und Fall*, 강성영 역, 『창조와 타락』(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7.

절들을 모으고 있네.), 살해, 기만, 약탈, 이혼, 심지어 간통이 행해지고(예수의 족보를 참고할 것), 의심과 비통, 그리고 저주 등이 나타나는 것인가? 종교적 ‘전 단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니까.”<sup>13)</sup>

이제 본회퍼가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유대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 III. 참된 교회의 문제로서의 유대인 문제

1933년 1월 결정적으로 정권을 잡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는 “기독교적 종교적 동기를 능숙하게 이용하여 교회를 지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동일한 관심사를 추구하고 교회가 새로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다.”<sup>14)</sup> 교회는 이 정권에 대해 굴복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든지, 이들의 유혹에 굴복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본회퍼는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지 이틀 만에, 시간적으로 1933년 2월, 한 라디오 연설에서 “젊은 세대에게 지도자 개념의 변화”<sup>15)</sup>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다. 비록 일찍 중단되었지만, 히틀러 정권이 가진 위험한 잠재력을 정확하게 간파한 후에 강력하게 비판한다. 이것은 “1933년 1월 이후 히틀러가 취한 유대인 정책에 대해 교회의 문제로 인식한 첫 번째 신학자가 되는 순간”이며<sup>16)</sup>, 히틀러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나치정권을 지지하는 ‘독일 그

13)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손규태, 정지련 역, 『저항과 복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98.

14) Christiane Tietz, 『디트리히 본회퍼-저항의 신학자』, 73.

15) DBW 12, 240-242.

16) Ferdinand Schlingensiepen, *Dietrich Bonhoeffer 1906-1945. Eine Biographie*(München: C.H.Beck, 2005), 142.

리스도인' 연맹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였다.

이런 본회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정권은 유대인들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1933년 4월 1일에 유대인 사업장에 대한 불매 운동을 강요했고, 1933년 4월 7일에는 소위 '아리안 조항'(Arierparagraph)을 통과시켰다. 아리안 조항은 비(非)아리안들이 독일 제국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고 배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어떤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과 채용이 비(非)아리안들에게는 거부되는 조항을 말한다. 이것은 교회로까지 확대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비(非)아리안인들 즉 유대인들은 학교나 교회 사역에서도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회퍼는 이런 나치의 전략이 단순히 한 종족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로 여긴다. 말하자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로 받아드린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소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본회퍼는 1933년 4월 당시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유대인 문제 앞에서의 교회”<sup>17)</sup>라는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다룬다. 하나는 교회는 유대인에 대한 국가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에 속한 세례 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다룬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윤리학의 중요한 주제인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에 대해 다룬다. 본회퍼는 교회가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정치행동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국가의 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회퍼는 교회가 국가의 정책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적게’(Zuwenig)와 ‘지나치게’(Zuviel)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대답한다.<sup>18)</sup> 교회는 국가에 대해 국가에게 기능적으로 맡겨

17) DBW 12, 349-358.

진 질서와 정의(Recht)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국가가 질서와 정의를 ‘너무 적게’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교회의 선포와 신앙의 권리를 간섭하고 박탈할 때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3가지 행동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먼저는 국가의 행동에 대한 합법성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가의 행동으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행동으로 희생당한 사람들과 연합할 뿐 아니라, 수레바퀴 자체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sup>19)</sup> 본회퍼는 바로 이런 행위 가능성들을 가리켜 교회의 정치적 행동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행동에 대한 조건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그것은 교회가 정의와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국가가 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을 볼 때라고 한다. 특정 집단의 권리를 국영 기업으로부터 박탈하는 ‘너무 적게’의 정책에서, 국가로부터 교회의 본질까지 그리고 교회의 선포에 까지 개입하려는 즉 세례 받은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추방하려는 ‘지나치게’의 행동을 국가가 취할 때, 본회퍼는 그런 상황을 ‘고백상황’(statu confessionis)으로 간주하면서 나치에 정면으로 저항해야 함을 말한다.<sup>20)</sup> 그래서 그에게 히틀러 정권이 취한 정책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슈트룬크(Reiner Strunk, 1941~ )는 국가사회주의와 히틀러 제국이 자행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에 정면으로 저항한 사람으로서 취한 본회퍼의 입장이『나를 따르라』를 위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사전 작업’이라고 간주한다.<sup>21)</sup> 그래서 유대인의 문제는 본회퍼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가

18) DBW 12, 352-353.

19) DBW 12, 353.

20) 채수일, “본회퍼와 반유대주의”, 『기독교사상』 50(2006), 106-115.

21) Reiner Strunk, *Nachfolge Christi: Erinnerungen an einer evangelischen Provokation* (München: Chr. Kaiser, 1981), 197ff.

법게 넘겨야 할 이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며, 교회의 투쟁을 위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본회퍼는 “유대인 문제 앞에서의 교회”에서 던진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를 이와 같이 다른 후에, 두 번째 질문 즉, 공동체에 속한 세례 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다룬다. 본회퍼는 세례 받은 유대인을 가리켜 우리 교회의 지체이기에, 교회를 위한 유대인 질문은 국가를 위한 질문과는 다르다고 말한다.<sup>22)</sup> 그러면서 유대교는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볼 때 인종적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계속해서 주장하길 “유대적 인종에 대해서도 생물학적으로 의심스러운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 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구성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수용을 통해서 유대인이 될 수 있다(*werden*).”<sup>23)</sup> 본회퍼는 계속 주장하기를 유대 그리스도교에 속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볼 때 유대적 인종이 그리스도적으로 세례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의미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신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속함에 조건지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본회퍼가 그의 논문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우리 독일계 그리스도인 공동체 지체들이 오늘날 유대인과 함께 하는 교회적인 공동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가가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포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유대인과 독일인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있는 여기에 바로 교회가 있고, 바로 그곳에 교회가 아직 교회인지 또는 아닌지가 입증된다”<sup>24)</sup>는 말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기에 본회퍼에게 유대인의 문제 단순한 정치적 현안 가운데 하나

22) DBW 12, 355.

23) DBW 12, 356.

24) DBW 12, 358.

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금석과 같은 문제였다.

본회퍼는 “유대인 문제 앞에서의 교회”라는 논문을 발표한 후 ‘유대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꾸준히 제시하였다.<sup>25)</sup> 그러나 1933년 7월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이 전체 교회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성취한 후에, 1933년 9월 27일에 실시한 소위 ‘갈색총회’에서 구 프로이센 연합 교회에까지 아리안 조항의 도입이 확대된다. 이것은 본회퍼로 하여금 교회투쟁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왜냐하면 그의 판단에 따르면, 이것은 신앙고백 상황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상황 속에서 1934년 5월 고백교회를 탄생시킨 “바르텐 선언”이 발표된다. 본회퍼는 비록 이 선언에서 ‘유대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피력했지만, 이 선언을 통해 참된 교회가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사회주의 권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또한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들의 이단사설과 밀러가 이끄는 제국교회(Reichskirche)를 배격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너에서 열린 에큐메니컬 회의의 참석 활동이나, 1935년부터 맡게 된 고백교회 목회자 후보자 훈련 신학원인 핑겐발데 사역 등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활동들에서도 ‘유대인의 문제’는 본회퍼에게 어떤 신학적이고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1935년 9월 어느 날에, 당시 핑겐발데 신학원 목회 후보자들에게 본회퍼가 했던 말을 베트게가 기억하여 우리에게 전한 문장은 본회퍼에게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유대인의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단지 유대인을 위해 소리치는 사람만이, 또한 그레고리우스 송가를 노래할 수 있다.”<sup>26)</sup> 본회퍼의 이 유명한 명언은 당시 그가 자주

25) DBW 12, 402-406.

인용했던 구약성경 잠언 31장 8절 말씀<sup>27)</sup>과 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본회퍼에게는 자명한 기독교적 실존이요, 교회의 실존으로 꼽았다. 그가 보기에 당시 기독교의 침묵은 바로 기독교 실책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sup>28)</sup>

그리고 본회퍼가 핑겐발데 신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1937년 저술한『나를 따르라』에서도 ‘유대인(교) 문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아젠다였다. 본회퍼가 본격적인 ‘유대인 문제’로 히틀러 정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저항에 나선 1933년은 비록『나를 따르라』에는 이런 저항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않지만, 이 책의 저술을 위한 결정적인 역사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sup>29)</sup> 베트게도『나를 따르라』의 주제와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미 1933년에 완전히 발전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1933년 정권을 잡은 국가사회주의와 히틀러 정권, 그리고 그 정권을 옹호하는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이 시행한 역사적 조치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적 답변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sup>30)</sup> 베트게의 아내 레나테 베트게도 1933년은 본회퍼에게 그의 생애와 삶의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변화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sup>31)</sup>

본격적인 교회투쟁시기에도 그에게 유대인 문제는 나치주의를 비판하는 지속적인 동인이었다. 퇴트에 따르면 “본회퍼는 제3제국과의 첫 번째

26) Eberhard Bethge, “Dietrich Bonhoeffer und Juden”, 195.

27)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28) Sabine Dramm, *Dietrich Bonhoeffer : eine Einführung in sein Denken*, 김홍진 역, 『본회퍼를 만나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291.

29) Reiner Strunk, *Nachfolge Christi: Erinnerungen an einer evangelischen Provokation*, 190-201.

30) Eberhard Bethge, *Dietrich Bonhoeffer*, 523-525.

31) Renate Bethge, *Dietrich Bonhoeffer*(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4), 24.

구체적인 갈등을 평화문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유대인 문제”로 시작했다<sup>32)</sup>고 말한다. 바르트도 베트게가 저술한 본회퍼의 신학과 생애에 관한 책을 읽고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본회퍼는 1933년 첫 번째 학자로, 즉 거의 유일하게 유대인 문제를 그렇게 중심적으로 주시하고 착수했다는 사실은 나에게 새롭다.”<sup>33)</sup> 왜냐하면 그 당시 이름 있는 신학자들에게는 ‘유대인 문제’가 본회퍼에게서처럼 그리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회퍼가 『나를 따르라』의 산상수훈 5장을 해석하면서 “형제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가 말하는 ‘형제들’이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형제들만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생각들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형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수용하도록 안내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한 물러(C. R. Müller)는 본회퍼가 『윤리학』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책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형제를 위한 책임의 관점”으로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평가한다.<sup>34)</sup> 이 말은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에서 ‘유대인의 문제’를 ‘형제를 위한 책임’ 안에서 수용했다는 것이다.<sup>35)</sup> 클라퍼트도 동일한 관점으로 산상수훈 5장에서 다룬 ‘형제들에

32) H. E. Tödt, *Theologische Perspektiven nach Dietrich Bonhoeffer*, 89.

33) Marikje Smid, *Deutscher Protestantismus und Judentum 1932/1933*(München: Chr. Kaiser, 1990), 24.

34) C. R. Müller, *Dietrich Bonhoeffers Kampf gegen die nationalsozialistische Verfolgung und Vernichtung der Juden. Bonhoeffers Haltung zur Judenfrage im Vergleich mit Stellungnahme aus der evangelischen Kirche und kreisen des deutschen Widerstandes* (Heidelberger Untersuchungen zu Widerstand, Judenverfolgung und Kirchenkampf im Dritten Reich 5)(München: Chr. Kaiser Verlag, 1990), 225-227; DBW 4, 124-126; 강안일, 『본회퍼에게 신앙을 배우다』(서울: 토비아, 2018), 160-161.

35) C. R. Müller, *Dietrich Bonhoeffers Kampf gegen die nationalsozialistische Verfolgung und Vernichtung der Juden. Bonhoeffers Haltung zur Judenfrage im Vergleich mit Stellungnahme aus der evangelischen Kirche und kreisen des deutschen Widerstandes*,

대한 섬김'은 '공동체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6)</sup>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본회퍼가 그동안 '유대인 문제'를 다룰 때 교회 안에 있는 세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졌다면, 여기에서는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1938년 11월 9일 밤에 일어난 일명 "수정의 밤"(Kristallnacht)<sup>37)</sup> 이후에 본회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회당이 불타오르면, 내일은 교회가 점화될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의 화재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본회퍼의 시각을 보게 하는 대목이다. 즉 '유대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다.

본회퍼는 『윤리학』의 "유산과 타락"에서도 유대인을 위한 정치적 책임을 위한 활동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이의 연대성이라는 점에 그 근거를 둔다.<sup>38)</sup> 본회퍼의 긴 주장을 들어보자.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야기의 계속성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약속된 메시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의 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뒤로하여 이스라엘 민족까지 소급

---

226.

36) Bertold Klappert, "Weg und Wende Dietrich Bonhoeffers in der Israelfrage", in: *Ethik im Ernstfall: Dietrich Bonhoeffers Stellung zu d. Juden u. ihre Aktualität*, hg. v. W. Huber u. Ilse Tödt(München: Chr. Kaiser, 1982)(IBF 4), 98.

37) "나치당이 유대인의 재산과 예배 처소들에 대해 조직적인 파괴를 선동한 1938년 11월 9일 밤을 이르는 말이다. 7,500개 상점이 파괴되고, 171개 유대인 회당이 방화로 소실되었다. '깨진 유리창의 밤'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사건과 관련, 본회퍼는 자신의 성경 시편 74편(8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에 밑줄을 그어 놓았다." John W. de Gruchy 편, 『본회퍼 신학개론-캠브리지 지침서』, 29.

38) DBW 6, 95.

된다. 서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민족 이스라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단되지 않는 진정한 만남 속에서 그러하다.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질문을 열어 놓고 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선택과 심판하는 진노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롬11:22). 서양에서 유대인을 추방하고 쫓아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추방하고 쫓아내는 것이 따라온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셨기 때문이다.”<sup>39)</sup>

또한 본회퍼는『윤리학』의 “자연적 삶”이라는 단편에서도 그 당시 히틀러 정부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탄압 정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인간에 대한 나치의 범죄에 맞서 인간 생명의 권리가 시급히 회복되어야만 했다.”<sup>40)</sup> 이런 생각과 동일하게 베트게는 ‘본회퍼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저항과 투쟁의 걸음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히틀러 정부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입장’<sup>41)</sup>이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1943년 4월 5일 체포된 본회퍼는 1945년 2월 7일까지 베들린 테겔 형무소와 프린츠 알브레히트(Prinz-Albrecht)의 지하 감옥에서 약 2년 동안 가족, 부모, 친구 에버하르트 베트게와 서신을 교환한다. 이 서신들을 묶어서 1951년 9월에 출판한 책이『저항과 복종』이다.<sup>42)</sup> 특별히 본회퍼가 100페이지가 넘지 않게 쓰려고 계획했던 “연구를 위한 기획”<sup>43)</sup>이라는 글에서 앞으로 교회는 분명하게 타인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공

39) 위의 책, 114.

40) Dietrich Bonhoeffer, *Ethik*, 손규태, 이신건, 오성현 역, 『윤리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01.

41) E. Bethge, “Dietrich Bonhoeffer und Juden”, 199.

42) Dietrich Bonhoeffer, 『저항과 복종』, 15-32.

43) 위의 책, 709-715.

동체여야 함을 주장한다. 여기에 진정한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있다. 타자를 위한 삶은 본회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다. 예수의 삶이 한마디로 타자를 위한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도 예수처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은 본회퍼 신학에서는 당연하다.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의 현실성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본다면 타자의 문제는 ‘유대인 문제’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현실 속에서 매일 만나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존재할 때 그 교회를 가리켜 참다운 교회라고 말한다.<sup>44)</sup>그러니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 문제’는 참된 교회를 판단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문제였음이 분명하다.

#### IV. 나가는 말 - 한국 교회에 주는 의의

본회퍼에게 ‘유대인 문제’는 당시 많은 신학자들과는 다르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시금석과 같은 문제였다. 왜냐하면 ‘유대인 문제’는 교회의 존폐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 유대 민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었다. 그래서 본회퍼가 그의 교회투쟁의 시발점을 ‘유대인 문제’로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sup>45)</sup> 그리고 그의 생애 후반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처럼

44) Dietrich Bonhoeffer, 『저항과 복종』, 713.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45) 본회퍼가 강조하는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 모두 찬성할 수는 없다. “분명한 사실은 본회퍼가 처음에는 교회 내부의 유대인의 상황에만 국한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온갖 새로운 신학의 길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특히 루터와 같은 사유전통에 얽매어서 우리가 돌이켜보며 염원하는 것처럼 그 사유전통을 그렇게 빨리

교회가 타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교회라 말할 수 없기에, 본회퍼에게 ‘유대인 문제’는 교회의 본질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생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렇게 본회퍼에게 중요한 ‘유대인 문제’는 그의 전체적인 신학과 윤리입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왜냐하면 그가 윤리를 가리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을 돕는 것”<sup>46)</sup>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회퍼에게 그가 살아온 격동적인 삶의 배경 속에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처럼 유대인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을 돕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럼 결론을 맺어야 하는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무엇일 까라는 질문이 생긴다. 1930년대 본회퍼에게 교회의 존재와 연결된 ‘유대인 문제’가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유대인 문제’의 문제를 보편화하여, 일반적인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유대인 문제’를 계속 질문하고 논의해야 하는가? ‘유대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일까? 분명한 것은 아직 ‘유대인 문제’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다.<sup>47)</sup>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시 독일교회에 일어난 ‘유대인 문제’처럼 오늘날도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본회퍼에게 ‘유대인의 문제’는 당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문제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가 유대인을 인종적으로 생각하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Sabine Damm, 『본회퍼를 만난다』, 296.

46) DBW 6, 372; 강안일, 『본회퍼에게 신앙을 배우다』, 177-179.

47) E. Bethge, “Dietrich Bonhoeffer und Juden”, 209. “1930년 유대인 문제는 아우슈비츠를 고려하여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되었다.”

지 않고,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로 간주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관점에서 또한 이해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해하는 윤리의 역할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을 돕는 것”<sup>48)</sup>이라고 말한 것도 이것과 연결된다. 본회퍼는 이런 생각으로 격동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며 살아온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유대인의 문제’는 한국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로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유대인 문제’가 ‘지금 그리고 여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의는 무엇인가? 두 가지만 이야기해보자. 하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읽는 훈련을 다시 해야 한다. 신약에서 구약을 읽는 것은 많았지만, 반대로 구약에서 신약을 읽는 훈련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양방향적인 읽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한쪽 방향이 강조된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본회퍼 시대에 ‘구약의 경시가 유대인 경시’로 나아간 것처럼, 유대인의 문제로 대두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외면은 한국교회 안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의 힘이 약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회퍼의 처방은 의미가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피안성이 우리 인식 능력의 피안성은 아니지 않는가! 인식론적 초월은 하나님의 초월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

서 피안적이지.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실패한 곳, 한계에 있지 않고, 마을 한 가운데 있지. 이것이 구약성서적이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약성서를 너무 구약성서로부터 읽지 않고 있다네.”<sup>49)</sup>

강성모도 이것에 대해 “본회퍼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위에서 구약성경이 갖는 현세적인 성격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로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언제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고, 세상 한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이것 때문에 본회퍼가 구약성경의 시각에서 신약성경을 보고자 한 동기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사람들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약을 바라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sup>50)</sup>고 평가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땅의 교회가 사회에 대해 갖는 다양한 담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 찬성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의 원인은 교회가 사회 안에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참여로 일별하고, 일명 영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적인 일에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교회가 사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급기야는 사회도 교회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두 번째로 본회퍼가 1935년 9월 어느 날에, 당시 핑겐발데 신학원 목회 후보자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한다. “단지 유대인을 위해 소리치는 사람만이, 또한 그레고리우스 송가를 노래할 수 있다.”<sup>51)</sup> 이 유명한 명언

49) Dietrich Bonhoeffer, 『저항과 복종』, 522.

50) 강성모, 『이 사람을 보라. 본회퍼의 삶과 신학』, 200.

51) Eberhard Bethge, “Dietrich Bonhoeffer und Juden”, 195.

은 당시 그가 자주 인용했던 구약성경 잠언 31장 8절 말씀<sup>52)</sup>과 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에게는 자명한 기독교적 책임적 실존이요, 교회의 실존으로 꼽았다. 그가 보기에 당시 기독교의 침묵은 바로 기독교 실체의 핵심이었다.”<sup>53)</sup> 당시 독일교회에 ‘유대인 문제’가 참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에 던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아픔들(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희생자 유가족들도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본회퍼가 ‘유대인 문제’를 교회의 존재 문제로 받아드린 역사적인 배경처럼 우리 사회의 아픔의 사건들은 단순히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본회퍼의 입장으로 보면 교회의 본질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본회퍼가 외쳤던 “단지 유대인을 위해 소리치는 사람만이, 또한 그레고리우스 송가를 노래할 수 있다”<sup>54)</sup>는 이 말은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수정해서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단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소리치는 사람만이, 또한 그레고리우스 송가를 노래할 수 있다.”<sup>55)</sup>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행해야 할 책임성을 상실할 때, 더 이상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도 교회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책임의 신앙

52)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53) Sabine Dramm, 『본회퍼를 만나다』, 291.

54) Eberhard Bethge, “Dietrich Bonhoeffer und Juden”, 195.

55) 위의 책, 195.

을 회복해야 할 당위성이 생긴다. 이를 위해 본회퍼가 말하는 책임의 신앙을 들어야 한다. 그는 『윤리학』에서 “책임”(Verantwortung)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대답(Antwort)으로서 삶<sup>56)</sup>’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의 현실성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과 대답<sup>57)</sup>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책임의 구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대리 개념과 흔히 ‘현실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같이 있는 사람들(Mitmenschen)과 하나님에게 연결되는(Bindung)’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이다. 이 자유는 자기의 삶과 행동에 대한 자기 평가와 확실한 결단의 모험(Wagnis)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은 본회퍼가 『저항과 복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타자를 위한 삶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교회는 분명하게 타인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 여기에 진정한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있다. 타자를 위한 삶은 본회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다. 예수의 삶이 한마디로 타자를 위한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도 예수처럼 타인을 위한 삶을 책임적으로 살아야 함은 본회퍼 신학에서는 당연하다.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의 현실성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그는 현실 속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책임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할 때 그 교회를 가리켜 참다운 교회라고 말한다.<sup>57)</sup>

---

56) DBW 6, 254

57) Dietrich Bonhoeffer, 『저항과 복종』, 713.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현존할 때 교회가 된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성모, 『이 사람을 보라. 본회퍼의 삶과 신학』. 서울: 나눔사, 2006.
- 강안일, 『본회퍼에게 신앙을 배우다』. 서울: 토비아, 2018.
- 채수일, “본회퍼와 반유대주의”, 『기독교사상』 50(2006).
- Bonhoeffer, Dietrich. *Schöpfung und Fall*. 강성영 역. 『창조와 타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_\_\_\_\_. *Ethik*. 손규태, 이신건, 오성현 역, 『윤리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_\_\_\_\_. *Widerstand und Ergebung*. 손규태, 정지런 역, 『저항과 복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Bethge, Eberhard. *Dietrich Bonhoeffer*. 김순현 역, 『디트리히 본회퍼』. 서울: 복있는 사람, 2014.
- Dramm, Sabine. *Dietrich Bonhoeffer : eine Einführung in sein Denken*. 김홍진 역, 『본회퍼를 만나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Gruchy, John W. de. *The Cambridge to Dietrich Bonhoeffer*. 유석성, 김성복 역. 『본회퍼 신학개론.캠브리지 지침서』. 서울: 종문화사, 2017.
- Pohlmann, H.G.. *Abriss der Dogmatik*. 이신건 역, 『교의학』.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3.
- Tietz, Christiane. *Dietrich Bonhoeffer: Theologe im Widerstand*. 김성호 역. 『디트리히 본회퍼.저항의 신학자』. 서울: 동연, 2022.
- Bonhoeffer, Dietrich. *Dietrich Bonhoeffer Werke*. hg. v. E. Bethge, E. Feil. Chr. Gremmels, Huber, W., Pfeifer, H. A., Schönherr, Tödt, H. E., Tödt, I.. München 1986-1991(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2-1999). 이 후부터는 본회퍼의 전집의 표시를 'DBW'로 사용한다.
- DBW 4: Nachfolge.
- DBW 6: Ethik.
- DBW 12: Berlin 1932-1933.
- Bethge, Eberhard. “Dietrich Bonhoeffer und Juden”. in: Feil, Ernst/Töd, Ilse.

- (Hg.) *Konsequenzen. Dietrich Bonhoeffers Kirchenverständnis heut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0.
- \_\_\_\_\_. *Dietrich Bonhoeff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5.
- Bethge, Renate. *Dietrich Bonhoeff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4.
- Crüsemann, Frank. *Das Alte Testament als Wahrheitsraum des Neuen. Die neue Sicht der christlichen Bibel*.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1.
- Klappert, Bertold. „Weg und Wende Dietrich Bonhoeffers in der Israelfrage.“ in: Huber, v. W. u. Tödt, Ilse. hg. *Ethik im Ernstfall: Dietrich Bonhoeffers Stellung zu d. Juden u. ihre Aktualität*. München: Chr. Kaiser, 1982. (IBF 4)
- Kuske, Martin. *Das Alte Testament als Buch von Christ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1.
- Körtner, U. H. J.. *Dogmatik*.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8.
- Müller, C. R.. *Dietrich Bonhoeffers Kampf gegen die nationalsozialistische Verfolgung und Vernichtung der Juden. Bonhoeffers Haltung zur Judenfrage im Vergleich mit Stellungnahme aus der evangelischen Kirche und kreisen des deutschen Widerstandes* (Heidelberger Untersuchungen zu Widerstand, Judenverfolgung und Kirchenkampf im Dritten Reich 5).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90.
- Schlingensiepen, Ferdinand. *Dietrich Bonhoeffer 1906-1945. Eine Biographie*. München: C.H.Beck, 2005.
- Smid, Marikje. *Deutscher Protestantismus und Judentum 1932/1933*. München: Chr. Kaiser, 1990.
- Strohm, Christoph. *Theologische Ethik im Kampf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Der Weg Dietrich Bonhoeffers mit den Juristen Hans von Dohnanyi und Gerhard Leibholz in den Widerstand*. München: Chr. Kaiser, 1989.
- Strunk, Reiner. *Nachfolge Christi: Erinnerungen an einer evangelischen Provokation*. München: Chr. Kaiser, 1981.
- Tietz, Christiane(hsg). *Bonhoeffer Handbuch*. Tübingen: Mohr Siebeck, 2021.
- Tödt, H.E. *Theologische Perspektiven nach Dietrich Bonhoeffer*. München: Chr.

Kaiser, 1988.

Wendel, Ernst Georg. *Studien zur Homiletik Dietrich Bonhoeffer. Predigt-Hermeneutik-Sprache*. Tübingen: Mohr, 1985.

논문투고일: 2023년 06월 03일

심사개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01일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에서는 본회퍼에게 ‘유대인의 문제’가 그의 신학과 생애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구약성경의 이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읽은 것은 즉, 올바른 구약 이해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분별 기준이 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것은 나치에 대한 하나의 저항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구약의 경시는 곧 유대인의 경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본회퍼에게 ‘유대인 문제’는 당시 많은 신학자들과는 다르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시금석과 같은 문제였다. 단순히 한 유대 민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었다. 이것은 본회퍼에게 유대인의 문제가 한국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하게 했다. 이것을 통해 본회퍼가 ‘유대인 문제’를 교회의 존재 문제로 받아드린 역사적인 배경처럼 한국사회도 사회적인 아픔들을 단순히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도 같은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본회퍼, 유대인 문제, 한국교회, 구약 이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